

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3차)

구 분	인 원
정 수	12인
재 적	12인
참 석	7인

1. 회의 개요

- ☐ 일 시 : 2024. 01. 17.(수) 14:00 ~ 15:00
- ☐ 장 소 : 믿음관 3층 세미나4실
- ☐ 참 석 : 재적위원 12명 중 7명 참여
 - 교직원위원 : 정세훈, 류재경, 최승구, 오충현
 - 학 생 위 원 : 백다연, 이거과, 이나라
- ☐ 불 참 : 구효진, 한지웅, 정재덕, 김윤아, 고완상

2. 안건

- 1) 2024학년도 신한대학교 등록금 책정(안)에 관한 사항

3. 회의 내용

- 정세훈 위원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본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 정세훈 위원장: 오늘 회의의 안건은 2024학년도 신한대학교 등록금 책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남호인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
- 남호인 간사: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교측 추가등록금 사용(안)에 대해서 설명함
 - 교내 장학금 추가 지급(안)
 -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보수 공사 사용 또는 기금 적립(안)
 - 기타 대학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보수공사(안)

간 서 명	정 세 훈	최 승 구	백 다 연
-------	-------	-------	-------

- 정세훈 위원장: 남호인 간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사항 또는 학생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함
- 이거파 위원: 캠퍼스 무선네트워크 고도화 관련해서 작년 9월부터 얘기가 나온 사안인데 등록금 인상과 관련성이 있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관련 사업을 하는 시점과 자금 집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 9월에는 사업에 대한 검토 단계였고, 실제 자금 집행은 2024년부터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며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도 동일한 사항임을 설명함
- 정세훈 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버 및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수강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예산 검토 단계 및 실행 계획을 구축하였고 실제적인 자금의 집행은 2024년에 진행될 예정임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교비로 지원 예정이라 하셨는데,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시기나 지원 대상을 자체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국가장학금 II유형 선발 및 지급 절차 등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하며, 학생팀과 협의 후 다시 알려주기로 함
- 이거파 위원: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학생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등록금 납부 기간이 도래했는데 1학기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인지 재차 질의함
- 남호인 간사: 바로 시행 예정임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학생팀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음을 설명함
- 류재경 위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관련해서 추가 설명함
- 이거파 위원: 국가장학금 II유형이 현 예산보다 초과 되면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학생팀하고 선발 절차 및 지급 방식을 협의하여 안내하겠다고 설명함
- 이거파 위원: 만약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을 지급한 후 남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문의함
- 남호인 간사: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이 거의 남을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임

간 서 명	정 세 훈	최명기	백대연
-------	-------	-----	-----

- 오충현 위원: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이고, II 유형은 신입생, 재학생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할당되기 때문에 선감면이 아니라 소득분위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임을 설명하며 추가로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아 지급하던 것을 교비에서 재학생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임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교비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인지를 재차 질의함
- 오충현 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함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기준이 국가와 동일하게 주는데 기준을 학교쪽에서 정하고 선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함
- 오충현 위원: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원래부터 학교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 했음을 설명하며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
- 이거과 위원: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을 받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에서 선발하여 지원하는 제도인 것인지 확인함
- 남호인 간사: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등록금을 인상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학교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교내장학금으로 추가로 지급이 되면 다른 장학금도 변경이 되는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장학금의 변경 여부는 해당 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크게 변경되지 않음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그렇다면 굳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제도가 있는데 등록금을 인상하면서까지 교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음을 말함
- 정세훈 위원장: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등록금을 인상한 당해연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함
- 이나라 위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중 신·편입생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해당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입학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히 보장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질의함

간 서 명	정 세 훈	최 동 기	백 다 연
-------	-------	-------	-------

- 남호인 간사: 국가장학금Ⅱ유형의 대학 자체 노력 연계지원 장학금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편입생의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굳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을 교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학교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 남호인 간사: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을 교비로 지원하고도 얻을 수 있는 인상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인상한 다음해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지원 내역을 상세히 검토해 보았는데 제시된 조건 그대로 교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지원)은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을 관련 부서(학생팀)에서 정해야 함을 설명함
- 정세훈 위원장: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함
- 이거파 위원: 회의자료를 보면 강의실 칠판 스크린 교체 및 말씀관 냉·난방공사가 등록금 인상 관련 학교측의 지원 내역의 핵심적인 내용인거 같고, 나머지 지원 내역은 이미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건으로 보이는데, 학교에서 제시한 위의 2건은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2023년 예산 현황은 현재 4차 추경 진행 중으로 회의자료로 배포할 예정인데, 2023회계연도 중에 일부라도 진행을 할지 2024회계연도로 자금을 이월시켜 진행 할지 여부는 입찰 등의 행정절차, 자금이 있어도 3월 이전에 공사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24년으로 자금을 이월시켜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며, 냉·난방공사는 등록금 인상분으로 진행하게 되며, 강의실 칠판 교체에 소요되는 금액은 한 개당 약1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거파 위원: 등록금 인상분의 계열별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계열별 등록금 인상(안)은 비율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산출된 안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말함

간 서 명	정 세 훈	최 동 기	백태경
-------	-------	-------	-----

- 이거파 위원: 그러면, 계열별로 어느 정도 조정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계열별 등록금 인상(안)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말함
- 정세훈 위원장: 계열별 등록금 인상(안) 비율 또는 금액 조정은 쉽지 않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등록금 인상(안)의 계열별 차등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려움을 말함
- 정세훈 위원장: 등록금 인상(안)의 계열별 차등 금액을 정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계열별 여러 사안을 놓고 고민을 해서 나온 안임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등록금 사용(안)을 보면 행함관 및 기도관 등의 냉·난방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문계열 학생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인문계열은 실습기자재 등도 해당사항이 없는데 인상분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조정이 필요함을 의견 개진함
- 정세훈 위원장: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의 등록금 갭 차이가 우리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등록금 인상(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학교 시설(강의실 등) 개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 밖에 없었음을 추가로 말함 인문계열 등록금 인상(안) 조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았으나 금액 조정보다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용하는 강의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강의실 개선(칠판 교체, 강의동 냉난방 개선 등)을 최우선 진행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익이 대략적으로 16억정도로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5억 지원, 모리아관 공사 11억 등 대략적으로 봐도 16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해주신다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며 여기에 작년에 계획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학생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듦
- 남호인 간사: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약16억이라는 추가 수입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장학금Ⅱ유형 대체 지원 금액을 제외하면 약11억에서 10억정도의 남은 금액에서 학생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계속해서 자구노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추가적으로 시설개선 부분에 투자할 계획임을 설명함 학교측 사용안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함
- 이거파 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 중 분할납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에 적립금은 없고 대출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함

간 서 명	정 세 훈	이 거 파	남 호 인
-------	-------	-------	-------

- 남호인 간사: 적립금이 없는 것은 맞으나, 대출이 많은 편이 아님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모리아관 강의실 공사는 100% 등록금 수입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현재 대출 신청 예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며 다음 회의에 대출 관련 안건이 상정 될수 도 있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그렇다면, 모리아관 공사 대금이 등록금으로 나갈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모리아관 공사는 대출로 진행 중으로 등록금 인상 후 추가 수입이 생기면 몇 년에 걸쳐 등록금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임을 추가 설명함
- 백다연 위원: 그렇다면 모리아관 공사는 대출로 진행이 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며, 입학정원에 외국인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외국인은 정원외 학생으로 2차 회의때 배포한 자료의 재학생 총원율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함
- 백다연 위원: 그렇다면, 추가된 인원은 전부 외국이 학생인 것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전부다 외국인 학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국제대학에 대해서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국제대학의 학생(외국인) 모집은 별도로 진행되며, 신설학과로 운영도 수업도 별도로 진행됨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국제대학을 별도로 모집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국제대학으로 몇 명이 입학하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1학기 기준 20~30명 정도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국제대학을 제외하고 외국인 학생 모집 원서접수도 다 끝났는데 대략적으로 국제대학을 포함해서 외국인 학생수에 대해서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관련해서는 확인 후 다음 회의 때 알려드리기로 함
- 백다연 위원: 국제대학은 학부 등록금과 동일하게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기존 외국인 학생은 이미 학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산출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원서접수 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국제대학 관련해서는 확인되면 정리해서 안내하겠다고 설명함
- 백다연 위원: 2차 회의때 설명해 주신 등록금 인상(안)에는 국제대학(외국인 학

간 사 명	정 세 훈	정 동 주	백 다 연
-------	-------	-------	-------

생)의 등록금을 학부(내국인) 등록금과 동일하게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인 학생(국제대학 포함)의 장학제도를 보면 금액과 자격조건이 내국인의 장학제도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학생은 내국인 학생에 비해 많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으로 보이며 내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한 혜택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동일하게 한들 과연 차별이 없다고 느껴질지가 의문이 듭

- 남호인 간사: 입학정원내와 정원외 전형에 대해서 설명함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다수 정원외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50%를 주더라도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원외로 모집되는 외국인은 대학 수입에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영측면에서는 이득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학생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내부 운영 사정을 아는 제 입장에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외국인한테 혜택이 치중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재학생은 얼마나 불합리하다고 느낄지 생각해주시길 바람 운영적인 측면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외국인한테 혜택이 많은 것으로 느껴질 것이 분명함
- 정세훈 위원장: 학생 입장과 운영 측면이 같은 입장임을 설명함 외국인 학생 유인책으로 장학금 비율을 높여 외국인 학생을 정원외로 1명이라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학생도 학교도 이득임을 설명함 이러한 수입들이 모여 교육 환경을 개선 등의 여러 항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특히 지방대)은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추가 수입액을 산출하셨는데, 입학 정원외의 인원을 추가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들고, 1,2,3차 회의를 하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학교의 상황, 적립금, 대출 상황을 다 들었을 때 지금은 등록금 인상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다시금 의문이 듭 타학교를 조사를 해 보면 인상을 선택하지 않았을때 외국인이나 대학원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는데 충분히 생각해서 나온 결론이라면 현재 재학생 탓이 아니기에 신입생에 한해서 등록금 인상을 하는 방안은 어떤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국제대학은 정원외 몇 명이 모집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출을 하지

간 서 명	정 세 훈	최 동 경	백 다 연
-------	-------	-------	-------

않았음 신입생만 인상하게 되면 다시 말해 1학년만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등록금 인상 효과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계속해서 못받을 수 있어 신입생만 인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설명함 대학원과 외국인학생(학부에 포함)만 인상하는 것도 인상효과(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재학생으로 대상을 선정했음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재정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혁신지원사업, 국제대학 등 여러 부분이 충분히 있어 지금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 같기 때문에 현재는 시기상조임을 말함
- 정세훈 위원장: 전차 회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등록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현재 한계에 도달했음을 설명하며 현재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청함
- 오충현 위원: 등록금 인상과 상관없이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내대학에 외국인 학생을 모집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기존의 외국인 학생들은 학부과정으로 편입되어 내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에 반해 국제대학은 이중언어 학과라고 해서 외국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담학과를 만들게 되었음. 학부 과정에서 내국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내국인 학생보다는 장학금이 많은 건 사실이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원외로 모집을 하고 전체 학과에 분산되어 배치가 되며 외국인 학생에게 별도로 투입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늘려서 주더라도 많이 선발하는 것이 대학 입장에서는 유리함. 그래서 외국인 모집에 치중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함. 국제대학은 별개로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유인책으로 장학금이 있긴 하지만 많이 주지 않을 생각이고 이들의 이중언어 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추가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줄 수가 없음.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이 재학생 기준으로 17%인데 국제대학은 재학생 기준보다는 낮게 맞출 예정임 국제대학은 이중언어 학과이고 외국대학은 8월에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3월 입학이 거의 없기에 9월 입학을 목표로 선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위한 노력을 하고

간 서 명	정 세 훈	최동주	백다연
-------	-------	-----	-----

있음. 대학원이나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학부에 편입되어 재학생과 수업을 같이 듣는 외국인 학생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가 없음을 설명하며 이해해 주길 요청함

- 이거파 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동적일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는 되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강행을 하실 건지 질의함
- 정세훈 위원장: 대외적으로 등록금 인상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등록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학생위원들이 반대해도 등록금을 인상하실 것인지를 질의함
- 정세훈 위원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계속 논의할 것임을 말함
- 이거파 위원: 등록금은 언제까지 확정해야 하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 발급을 2월 초에는 완료해야 하므로 늦어도 1월 26일까지는 확정을 해야 하며 등록금이 확정된 이후에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학생대표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 할 수밖에 없으며 재학생들이 지고 갈 짐은 아닌 것 같다 신입생들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최선인 것 같다 앞으로는 축제, 학식 등 입찰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마다 학생위원이 무조건으로 참석을 해야 함을 의견 개진 함 만약에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계열별로 비율 재조정 및 신입생만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4학년 학생까지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음 정리하자면 신입생 및 유학생, 대학원 등의 다른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안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세훈 위원장: 상기 의견과 관련하여 학생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신입생만 인상하는 방안은 남호인 간사가 설명했듯이 어려울 것임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정세훈 위원장님과 남호인 간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4학년 학생들은 올해 다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데 똑같이 4학년 학생들한테 현 시점에서의 등록금 인상은 불합리하다고 느낄게 분명함
- 정세훈 위원장: 지금 재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전에 있던 학생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4학년 학생들을 예외로 할 수 없음을 설명함
- 이거파 위원: 학생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원함 만약 등록금을 동결하였

간 서 명	정 세 훈	정 동 주	백 다 연
-------	-------	-------	-------

을때의 운영 계획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함

- 정세훈 위원장: 등록금을 동결하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중지가 될 수 있으며, 등록금 인상분 및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을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이므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운영 계획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빠른 변화 보다는 학생들과 같은 속도로 받을 맞춰 주시기를 원함
- 정세훈 위원장: 대학 교육 운영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다시 설명함
- 이거과 위원: 마이크로디그리전공 도입 시에도 회의를 하였지만 학생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강행을 하였고, 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방식은 학생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와는 다른 입장을 취해주시기를 요청함
- 정세훈 위원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등록금 인상에 관련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여러 방향을 검토 해 보았지만 대학 발전을 위한 시도이자 선택이기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지만 또 다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선택임을 말함
- 이나라 위원: 인문사회계열과 공학예체능계열의 등록금 차이가 20만원 정도 나는데, 공학예체능계열은 실험실, 체육관, 단련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한 그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문사회계열에도 별도의 베네핏이 필요함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에벤에셀관에 대한 지원 내역이 없는 것 같다 에벤에셀관 학교시설 중 그나마 최근에 건축한 건물이지만 에어컨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벤에셀관도 시설보수 및 다른 복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혹시 에벤에셀관에 별도로 학생 복지시설로 원하는게 있는지 질의함
- 이나라 위원: 북카페, 빈백쇼파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추려서 주시면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말함
- 이거과 위원: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취합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된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등록금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음을 말하며 학교측에서 등록금 인상 비율을 재조정할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함

간 서 명	정 세 훈	최 동 주	백 대 연
-------	-------	-------	-------

- 남호인 간사: 혹시 학생측에서 생각하는 등록금 인상 비율 재조정 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함
- 백다연 위원: 이나라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복지국에서 설문조사를 자주 실시했는데 에벤에셀관도 냉난방 불만, 빔프로젝터 및 컴퓨터의 잦은 고장, 6층 누수 등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음을 설명하여 6층의 경우에는 총학생회에서 수습을 하였음을 추가로 말함
- 백다연 위원: 회의자료에는 대학원의 추가 수입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대학원의 추가수입액과 현재 통학버스 예산에 대해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현재 통학버스 예산은 학생팀에 약6억5천 정도 배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통학버스 예산은 매년 지급이 되는 것 인지 추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매년 해당 금액만큼 지급이 되고 있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통학버스 비용이 인건비 포함인지 추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인건비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설명함
- 백다연 위원: 학교 경비, 청소 등 관리비로 지출되는 예산 자료 제공을 요청함
- 이거과 위원: 증명료 수입 금액 및 처리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함
- 이나라 위원: 모리아관 공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국내 학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가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외국인 학생 모집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강의실이 부족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학원 및 학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함
- 정세훈 위원: 한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2캠에서 1캠으로 이전하는 학과의 강의실 확보로 인해 현재 강의실이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함
- 이거과 위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학생팀이랑 협의된 세부적인 완성된 자료를 받아 볼수 있는지 질의함
- 남호인 간사: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음
- 백다연 위원: 간호대학 실습강의실이 따로 있는데 실습실에 있는 기자재를 1캠으로 옮길 때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질의함
- 남호인 간사: 질의하신 건은 당장은 자료 추출이 어려운 사항이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님을 설명함
- 정세훈 위원장: 등록금 인상(안)과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다음회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회의 일정은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학생 위원들과 협의 후 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다른 의견 또는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포 함

간 서 명	정 세 훈	정 세 훈	백 다 연
-------	-------	-------	-------

4. 결정사항

- 등록금 인상 관련 고려 사항이 반영된 정책 사항 다음 회의에서 논의
- 매주 금요일 14시 정기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2024년 1월 한정)

5. 행정사항

- 위의 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간서명은 참석위원 중 정세훈 위원장, 최승구 위원, 백다연 위원이 대표로 간서 하며 참석 위원들은 서명날인하기로 함

2024. 01. 17.

위원장	정세훈	정세훈
위 원	구효진	(인)
위 원	류재경	류재경
위 원	최승구	최승구
위 원	오충현	오충현
위 원	한지웅	(인)
위 원	정재덕	(인)
위 원	백다연	백다연
위 원	이거파	이거파
위 원	김윤아	(인)
위 원	이나라	이나라
위 원	고완상	(인)

간 서 명	정 세 훈	최 승 구	백 다 연
-------	-------	-------	-------